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위해 부탁하신 말씀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후서- 시편 119:105, 디모데후서 3:16-17

정윤돈 목사님

* 시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딤후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헌신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영육간의 절대불가능한 부분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직장 산업과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생명 걸고 원니스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시는 절대이유와 절대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실천하고 응답받고 도전해야 할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탄이 우리들을 속이고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공생애 사역을 할 때 사탄이 내려와 예수님을 시험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없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죽고 학살을 당해도 내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는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 사탄이 역사함을 볼 수 있다. 예수님도 사탄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녹아들고 체질이 되면 문제들이 응답과 축복의 전환점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실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성경말씀을 조금만 집중하여 읽고 듣기만 하여도 우리들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 속에 무의식적으로 각인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졸기만하더라도 돌아켜보면 인생이 굉장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전도를 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성북구 아리랑고개에서 살았다. 미아리고개 근처에 호떡집이 있어서 친구를 데리고 가며 전도를 했는데 친구가 성경을 몇 번 읽어봤냐고 물어봤다. 그 때 한 번도 안 읽어본 상태였다.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많다. 말씀을 읽고 풀보다 달다는 경험치 없는 경우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성경 읽다 은혜를 받으면 줄을 굶게 되어있다. 성경을 읽는데 한 절을 읽는데 너무 기뻐서 목상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는 분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창조의 말씀이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계약서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계약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구한 적이 있는가. 조지 뮐러는 68년 8개월 동안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영혼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어야 한다. 그러면 흐름이 보이고 줄이 그려진다.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서점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을 찾아왔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란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생이든 중고생이든 대학생이든 군대에 있든 회사에 있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번도 영접 못해보고 염려, 근심하다 인생이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 핵심이 성경을 읽는 것이다. 디지털로 읽고 귀로 듣는 것과 직접 줄을 그으면서 읽는 것은 다르다. 굉장히 중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살리라고 보내셨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성취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허블망원경과 제임스 웹으로 촬영한 우주의 은하를 보니 너무 아름답더라. 성경은 진리다. 욕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공중에 다셨다고 나와 있다. 또한 별의 개수도 끝이 없다고 나와 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진리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셨다고 했다. 과학자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길이 있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초과학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리고 제육일 날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창세기 1장 27에 보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존재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 후로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12가지 문제와 그 안의 오만가지 문제 속에 빠져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매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해결자임을 믿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사탄과 세상에 속아 잘못된 성공과 잘못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정작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은 알지 못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과 영적으로 추하고 더러워진 현장을 살리기 위해 평생 동안 생명 건 헌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순교의 시간표가 왔음을 알았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기록하였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이다. 제가 사망하여 갈 때, 세계복음화와 교회를 부탁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부모에게 끌려서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면 안 된다. 나이가 어리다고 모르는 것이 절대 아니다. 거짓말이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인간은 죄인이고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어렵지 않다. 바다도 공기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 속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조건 하나 하나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영세 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주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현상과 그 문제들을 치유하고 해결할 “부탁의 말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세의 때를 먼저 이야기했다. 개혁신의 신학에서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순간부터 재림하시는 순간까지이다. 아브라함까지가 전반기, 예수님까지가 중반기, 그 이후를 말세라고 한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19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다. 죽음에 앞서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1) 자기를 사랑하며 (2) 돈을 사랑하며 (3) 자랑하며 (4) 교만하며 (5) 비방하며 (6) 부모를 거역하며 (7) 감사하지 아니하며 (8) 거룩하지 아니하며 (9) 무정하며 (10)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11) 모함하며 (12) 절제하지 못하며 (13) 사나우며 (14)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세계사를 보면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시민들을 죽인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학살하고 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하다. “(15) 배신하며 (16) 조급하며 (17) 자만하며 (18)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9)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셨다.

(1) 첫째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신명이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으면 나만 사랑하고 내 자식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2) 두 번째로 말세에는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만 주면 뭐든지 다 한다고 한다. 성경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유하고 반성하기를 원한다. 오직 전도, 선교, 하나님이 우선되면 된다.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3) 말세에는 자기를 “자랑한다”고 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4) 말세에는 사람들이 “교만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5) “비방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절과 3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7: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7:3)라고 말씀하고 있다.

(6)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억울한 일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하였다.

(7)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8)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9) “무정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다.

(10)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내 기준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시간이 지나면 거듭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11) “모함하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재판장은 이 모함을 자세히 조사하여 거짓으로 판명되면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12) 말세에는 “절제하지 못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중에는 “절제”가 있다.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3), “이끼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9:25)

(13) “사니우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14) 또한 말세에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15) “배신하며”

(16) “조급하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5:8),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느9:30).

(17) “자만하며”. “이무 일에도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2:3),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시149:4)

(18)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8:13)라고 말씀하고 있다.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란다.

(19)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 19가지 말세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모습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세의 모습에서 돌아설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고 있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이러한 불신자상태에서 돌아설 수 있는 ‘절대 망대요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알아보겠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락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1) 첫째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난을 받으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여러 번 매를 맞았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를 축원드린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

(2) 1장 13절에는 “내게서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3) 14절에서는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이 추악하게 변했는데, 이것을 다시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4)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사람은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 은혜

안에서 강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힘도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해줄 수 있다.

(5) 2절에 보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사도 바울이 말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로마에서 핍박이 오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몇 명의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한 것이다.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란다.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할 거라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믿음의 길을 걸겠다는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6) 4절에서는 복음의 군사된 전도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의 군대, 특히 전도자는 그렇다. 처음에 개척하니까 항상 돈이 없었다. 신학대학에 가면 다 돈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셨다.

(7) 5절에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회법과 세상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

(8) 2장 8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항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이다. 부활의 주인이 함께 역사하면 모든 것을 살리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건강도 전도도 교회도 회사도 부활의 역사가 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9)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

(10) 15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고 부탁하고 있다.

(11) 16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경건과 거룩함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용이 없이 시끄럽게 불평만 늘어놓는 말’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답이 되는 지혜로운 말을 하여야 한다.

(12) 21절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13)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14) 22절 “의와”

(15) 22절 “믿음과”

(16) 22절 “사랑과”

(17) 22절 “화평을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18) 2장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다름이 나기 때문이다.

(19) 24절에서는 마땅히 중으로서 “다투지 말라”

(20) 24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21) 24절 “가르침기를 잘하라”

(22) 24절 “참으라”

(23) 25절에서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24)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19가지 말세의 상황에 빠지지 말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다.

(25) 3장 12절에 보면 “경건히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26) 3장 14절에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27) 14절 그리고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고 신앙의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28) 3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성경의 역할을 잘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29) 4장 1절과 2절에 보면, 특별히 부락이 아니라 엄하게 명령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 “엄히 명하나니 말씀을 전파하라”

(30)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구원 받은 우리에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명령이다.

(31) 4장 2절 “범사에 오래 참으라”

(32) 4장 2절 “가르치라”

(33) 4장 2절 “경책하라”

(34) 2절 “경계하라”

(35) 2절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진짜 전도제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하고 있다.

(36) 4장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근신하라”

(37) 5절 “고난을 받으며”

(38) 5절 “전도인의 일을 하며”

(39) 5절 “네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39가지 권면의 말씀 중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 바란다. 사도 바울이 말세지말의 때를 보고 부탁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디모데와 사도 바울같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말씀, 진리로 붙잡고 실천해야 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